

##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변인 분석 및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김 동 심<sup>1)</sup> · 윤 혜 준<sup>2)</sup>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입시 혹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행복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영향 요인들이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잠재평균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 교육 고용패널조사II(KEEP II)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의 4개 유형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6,449명의 학생용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학생 개인의 자아인식,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 학생 개인의 학습 태도, 미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가 진로성숙도 및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와 행복에는 자아인식, 부지원, 장래희망 여부 및 학습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자아인식, 부지원, 학습태도, 진로성숙도, 행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습태도를 제외하고,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자아인식, 부지원, 진로성숙도, 행복이 높았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I.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고등학생의 약 29%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9). 자살과 객관적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주관적 행복감이 반드시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Weerasinghe·Tepperman(1994)의 연구도 존재하지만 자살은 개인의 극도로 불행한 상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나 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교육에 대해 기대하지 않음은 물론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기범(2009, p. 367)의 주장처럼 현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교육 문화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행복은 포기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어 후기 청소년기의 행복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행복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핵심 변인 중 하나는 진로성숙도이다. 진로성숙도(career

1)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hjyoon@krivet.re.kr)

maturity)란 개인의 전 생애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진로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같은 연령대나 동일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집단 내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1; Crities, 1978; Super, 1957). 청소년기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신을 이해하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로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진로 선택의 중요성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 청년 실업 문제,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다룬 그동안의 연구들에 따르면 진로성숙도가 낮으면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교 적응이 낮아질 뿐 아니라 청소년 비행, 자아정체감, 불안, 자살 사고 등과의 관련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래·이혜원, 2007; 배성만, 2016; 최윤희·김순자, 2011).

청소년기의 행복과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진로교육법 시행과 함께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에 관한 관심과 주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청소년기 심리적 건강과 진로 발달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진로교육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나가는 시점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의 진로성숙도와 행복 관련 변인을 탐색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행복에 관한 연구는 필연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휘정(2017)은 진로성숙도와 같은 결과 변인은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생애 단계의 전 주기에 걸쳐 나타나므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등이 환경적 변화까지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 관찰하여야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 준비로 인해 시험 불안과 경쟁적 교실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진로성숙이나 행복 여부는 개인적 특질이나 가정 배경, 그리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학교 특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손선옥(2019)은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이 여전히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발달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입시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행복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개인의 자아인식과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이라는 변수에 주목하고, 이 두 변수가 개인의 학습 태도와 미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학생 개인의 행복 및 진로성숙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잠재평균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이들 변인들이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자아인식의 수준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 및 관심은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행복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청소년기의 행복이나 진로성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적 자원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자원으로서 학생 개인의 주변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왔다.

먼저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분리된 실체로 인식하게 하는 자아개념(self-concept)은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특히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과 성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이다(송인섭, 1989). 김종운·김지현(2008)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신체적 특징, 개인적 기술, 특성, 가치관, 희망, 역할, 사회적 신분 등을 포함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는 자신을 사물이나 타인과 다른 존재라고 느끼는 영아기를 거쳐 아동기에 이르러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 되고 싶은 지에 관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p. 131). 행복의 핵심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는 것에 있다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독특한 자존을 탐색하여 발휘하는 것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현”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한혜림·이지민, 2018, p. 105).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아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학업 관련 변인과 진로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오정석·김성백·박찬정, 2014; 황현정·백지연, 2015). 자아개념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시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송인섭, 1989). 시험 불안, 진로에 대한 고민, 부모 및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환경에 처한 고등학생이 갖는 부정적 자기 평가는 학습 태도나 미래에 대한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목고 학생의 행복감에 관한 송영명(2011)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높은 융통성과 문제해결력, 그리고 자신감을 보인다고 보았다. 종합하면 개인이 가진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 과업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학생 개인의 자아 인식 수준 높을수록 학습 태도와 미래 직업 결정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신의 행복 및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원이라는 변수에 주목하고 특히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과 관심이 자녀의 진로성숙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존재로 가족주의 정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막강하다. 현정환(2017, p. 96)은 “한국인들의 사회적 인간관계는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를 시작으로 더 큰 집단과의 관계로 확대 적용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보면서 관계 중심의 가족 문화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과 심리적 발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라는 개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구 목적에 따라 조작적으로 정의되

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 격려, 관심 등을 포함하여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활동 및 여건을 의미하며 보통 언어나 태도로 표현되어 자녀에게 전달되며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 유대감이 강화된다(배희분·서주현·김효선, 2017; 황혜영·장유진, 2017).

부모-청소년 자녀 간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원은 심리적 발달과 진로 성숙, 행복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박완성·김미숙, 2009; 이형실,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인식한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았고 통제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진로결정력은 낮았다(Lee & Cho, 2004; 이형실, 201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특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정 변인과 자녀의 성취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한 실증 연구들은 부모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진영·김기현(2019)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부모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책임과 희생을 부모의 역할로 부여받게 되었고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뒤통자”와 같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묵묵히 채워줌”(p. 186)으로써 간접적인 형태로 애정과 정서적 지원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적인 표현의 형태로 드러나는 정서적 지원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고려할 때 아버지일 경우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루어진 대부분의 실증 연구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부모를 통칭하여 보거나 모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족 증가에 따라 자녀 양육의 책임이 모에 한정되어 살펴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전혜경·김병석·김재철·최희철, 2012).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이나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진로탐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태도, 행동, 발달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요인이지만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므로 그 관계에 관한 탐색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변수용·김경근, 2008). 한편 청소년의 행복이나 진로성숙을 다룬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 및 가정변인과 결과 변인 간의 관계에 다양한 과정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독립 변인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과 관심이 높을수록 보다 직접적인 결과변수로서의 학생 개인의 학습 태도와 미래 직업 결정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나아가 이들 변인들이 학생 개인의 행복 및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행복 및 진로성숙도와 이와 관련된 연구 변인들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학교는 일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고,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과학, 외국어, 예술 등의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목고 및 학교 설립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자율고이다. 중학교 이후, 자신의 적

성, 학업성적, 진로계획 또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나 부모의 영향 등에 따라 선택한 고등학교 유형은 고등학교 생활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요인이다(김동심·주영주, 2017).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유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업 평가(김성훈·김안나, 2009; 김천홍·홍수진, 2017)에 차이 등에 논의가 되고 있었다. 생활 전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학교 유형을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학교 유형에 따른 운영 방향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자아인식, 아버지의 지원, 학습태도, 진로성숙도, 행복 변수는 학교 유형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 Ⅲ.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II(KEEP II) 1차년도 자료 중 고등학교 2학년 (2016년 당시) 코호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변인관련 모든 질문에 응답한 학생 7,84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녀비율은 남성 52.21%, 여성 47.79%이며, 지역은 경기 22.05%, 서울 14.97%, 경상 12.43%순이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가 포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특목고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일반고 54.37%, 특성화고 22.06%, 특목고 17.97%, 자율고 5.60%순이다.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구분		명수	비율	구분		명수	비율
성별	남성	4,094	52.21	지역	서울	1,174	14.97
	여성	3,747	47.79		부산	489	6.24
학교 유형	일반고	4,263	54.37		대구	438	5.59
	자율고	439	5.60		인천	487	6.21
	특성화고	1,730	22.06		광주	279	3.56
	특목고	1,409	17.97		대전	270	3.44
	(과학고)	135	1.72		울산	236	3.01
	(외국어고)	182	2.32		경기	1,729	22.05
	(예술고)	195	2.49		강원	246	3.14
	(체육고)	175	2.23		충청/세종	695	8.86
	(마이스터고)	722	9.21		전라	710	9.05
	전체	7,841	100.00		경상	975	12.43
			제주		113	1.44	

##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자아인식, 부지원, 학습태도, 진로성숙도, 행복 및 장래희망여부를 사용하였다.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자아인식은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묻은 총 6문항(예: 나는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을 사용하였다. 단요인이며, KMO(Kaiser-Meyer-Olkin)지수는 .824로, Barlett 검증 결과는  $X^2=17,418.928(p < .05)$ 이며, 신뢰도 Cronbach의  $\alpha$ 는 .835이다.

부 지원은 남성보호자에 대한 질문 중 친밀정도와 관련된 Likert 5점척도의 9문항(예: 아버지(남성 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을 사용하였다. 2요인으로 나타나서, 문항구성에 따라 정서지원, 생활관심으로 명명하였다. KMO지수는 .884로, Barlett 검증 결과는  $X^2=31,069.679(p < .05)$ 이며, 신뢰도 Cronbach의  $\alpha$ 는 .878이다.

장래희망 여부는 1문항(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한 것을 활용하였다. 아니오로 응답한 것으로 0으로 코딩하고, 예로 응답한 것은 1로 코딩을 변환하였다.

학습태도는 평소 수업태도를 묻는 Likert 5점척도의 5문항(예: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을 사용하였다. 단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KMO지수는 .776로, Barlett 검증 결과는  $X^2=11775.741(p < .05)$ 이며, 신뢰도 Cronbach의  $\alpha$ 는 .794이다.

진로성숙은 진로에 관한 학생의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Likert 5점척도의 14문항(예: 나는 내가 원하는(혹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을 사용하였다. 2개 요인으로 검증되어, 문항구성에 따라 진로계획과 직업 탐색으로 구분하였다. KMO지수는 .927로, Barlett 검증 결과는  $X^2=47,081.158(p < .05)$ 이며, 신뢰도 Cronbach의  $\alpha$ 는 .908이다.

행복은 청소년시기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생활만족도 문항(예: 현재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합니까?)과 가정생활만족도 1문항(예: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합니까?)을 구성요소로 하여 Likert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학교유형에 따른 변인 간차이를 확인하고자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인식, 학습태도는 단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묶음지표를 사용하여 무선적으로 자아인식의 경우 자아인식A, 자아인식B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 지원은 2요인으로 탐색되어 정서지원, 생활관심으로, 진로성숙도도 2요인으로 나와 진로계획과 직업탐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영향력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 검증 과정을 걸쳤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활용하는 *t*-검증, ANOVA, MANOVA 등은 측정오차에 의해 영향을 받아, 측정오차를 통제하여 잠재변수의 평균을 비교하는 잠재평균 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잠재평균 분석은 집단 간의 측정모형이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잠재변수의 추정미지수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써 측정오차를 통제하여 잠재변인의 평균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방법이다(김주환·홍세희·김민규, 2009). 잠재평균 분석을 위해서는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및 절편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의 제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동일성 제약을 확보한 이후, Cohen(1988)의 효과크기를 사용하여 추정된 잠재평균의 상대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기초통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2.16에서 최고 3.78, 표준편차의 평균은 최소 .65에서 최고 .86이었으며, 왜도는 절대값 최소 .04에서 최대 .85, 첨도는 절대값 최소 .03에서 최고 .35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2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7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05),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인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기초통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 자아인식A	-									
2. 자아인식B	.74*	-								
3. 부 정서지원	.31*	.28*	-							
4. 부 생활관심	.26*	.26*	.59*	-						
5. 학습태도A	.30*	.29*	.23*	.21*	-					
6. 학습태도B	.24*	.26*	.21*	.22*	.77*	-				
7. 진로계획	.40*	.41*	.21*	.23*	.37*	.33*	-			

	1	2	3	4	5	6	7	8	9	10
8. 직업탐색	.53*	.54*	.28*	.28*	.36*	.33*	.64*	-		
9. 가정만족	.29*	.24*	.44*	.37*	.19*	.19*	.14*	.21*	-	
10. 학교만족	.28*	.23*	.22*	.17*	.27*	.21*	.14*	.20*	.29*	-
평균	3.78	3.60	3.59	3.64	3.02	3.13	3.27	3.66	2.16	3.67
표준 편차	.69	.70	.75	.86	.74	.80	.68	.65	.85	.85
왜도	-.33	-.06	-.45	-.62	.09	-.04	-.08	-.27	-.85	-.38
첨도	.26	.09	.30	.26	.16	-.03	.14	.26	.3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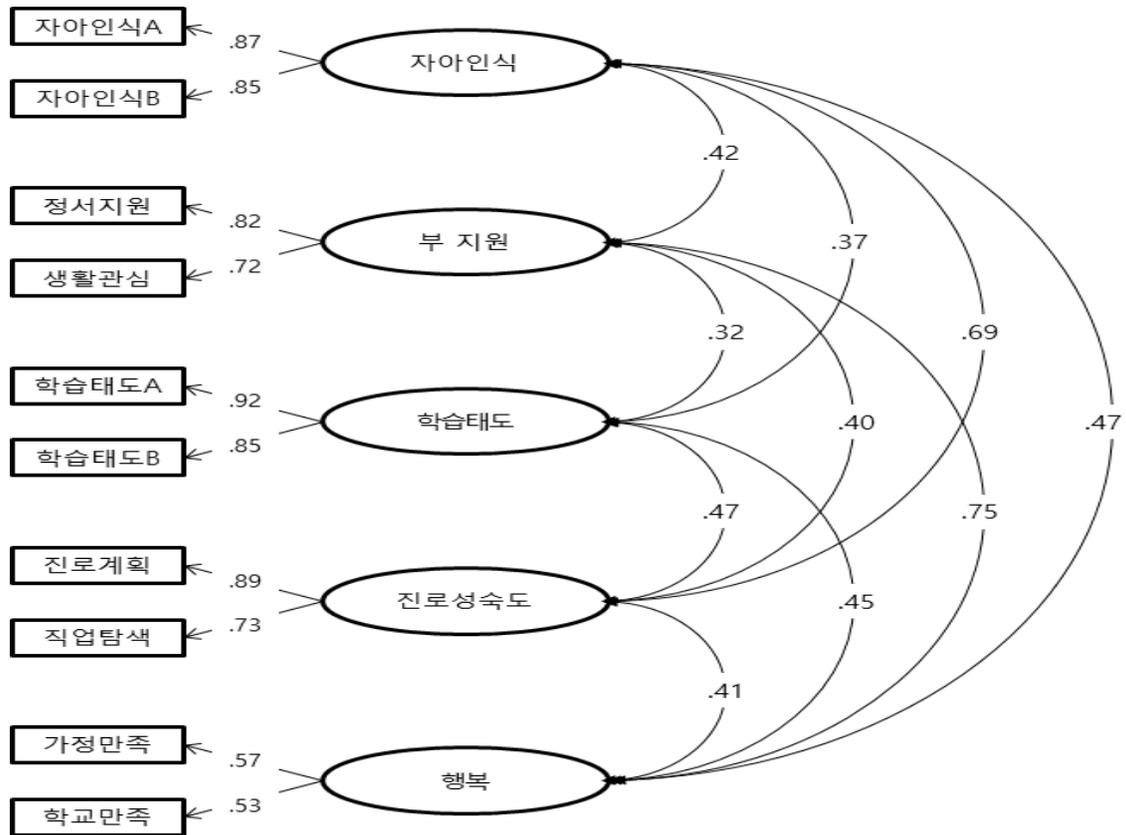
## 2. 영향요인 분석

먼저,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2단계 모형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15)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에 의한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측정모형의 부합도 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모형의 TLI = .958, CFI = .974, RMSEA = .061 등을 비롯하여 모두가 좋은 부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은 최소 .53, 최대 .92로,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의 기준에 적합하였다(Hair·Black·Babin·Anderson, 2009). 그리고 측정변수들과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는 최소 .32, 최대 .76 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타당도 기준인 각 잠재변수 간의 상관이 .85이하(문수백, 2009)가 확인되었다.

**<표 3> 모형의 부합도**

구분	$\chi^2$	$p$	$df$	TLI	CFI	RMSEA(90%)
측정모형	837.821	.00	28	.958	.974	.061
연구모형	1781.218	.00	34	.913	.946	.081
수정모형	1781.584	.00	35	.916	.946	.080



[그림 1]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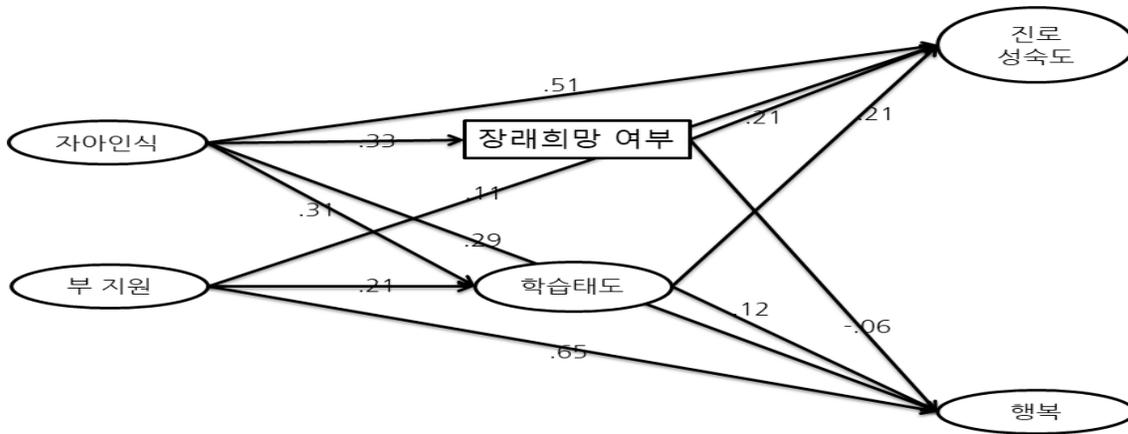
통계적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부합도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의 부합도는 TLI = .913, CFI = .946, RMSEA = .081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부 지원과 장래희망 결정여부간의 관계( $\beta = .06, p > .05$ )로 나타나 이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의 부합도를 측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결과는 다음 <표 4> 및 [그림 2]과 같다. 장래희망여부에는 자아인식이 유의한 영향( $\beta = .33, p < .05$ )을 미쳤다. 학습태도에는 자아인식( $\beta = .31, p < .05$ ), 부 지원( $\beta = .21, p < .05$ )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진로성숙도에는 자아인식, 학습태도, 장래희망여부, 부 지원 순으로, 행복에는 부 지원, 자아인식, 학습태도, 장래희망여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4〉 수정모형의 요인계수

외생변인		내생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임계치
자아인식	→	장래희망여부	.268	.010	.332	27.814*
자아인식	→	학습태도	.227	.014	.311	15.821*
부 지원	→		.350	.015	.213	23.392*
자아인식	→	진로성숙도	.405	.012	.512	34.891*
부 지원	→		.085	.008	.114	10.213*
장래희망여부	→		.211	.010	.215	20.179*
학습태도	→		.152	.008	.217	18.543*
자아인식	→	행복	.177	.012	.292	14.739*
부 지원	→		.373	.015	.652	24.147*
장래희망여부	→		-.048	.012	-.063	-4.415*
학습태도	→		.066	.009	.123	7.098*



[그림 2] 수정모형

### 3. 잠재평균 분석

측정동일성을 확인을 통해 비교집단의 측정모형이 같은지 평가하였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학교유형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모든 집단에서 양호한 부합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의 분산값을 나타내고 있어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표 5〉 집단별 부합도

구분	$\chi^2$	$p$	$df$	TLI	CFI	RMSEA
일반고	540.371	.00	28	.949	.968	.066
자율고	101.080	.00	28	.928	.955	.077
특성화고	150.067	.00	28	.972	.982	.050
특목고	157.146	.00	28	.962	.976	.057

각 집단의 잠재평균을 비교를 위해서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제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간의 차이를 보기위해 표본에 크기에 영향을 받는  $\chi^2$  검증 대신에 모형간의 부합도 차이값을 활용하였다. 모형부합도 차이값에 대한 지표로 CFI와 RMSEA의 변화량을 살펴보는데(Chen, 2007), CFI 변화량은 잠재평균분석에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못해(문선호·이순환 2013), 본 연구에서는 RMSEA의 변화량 .015 이하의 기준으로 살펴보아 동일성 제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 6〉 동일성 검증에 대한 부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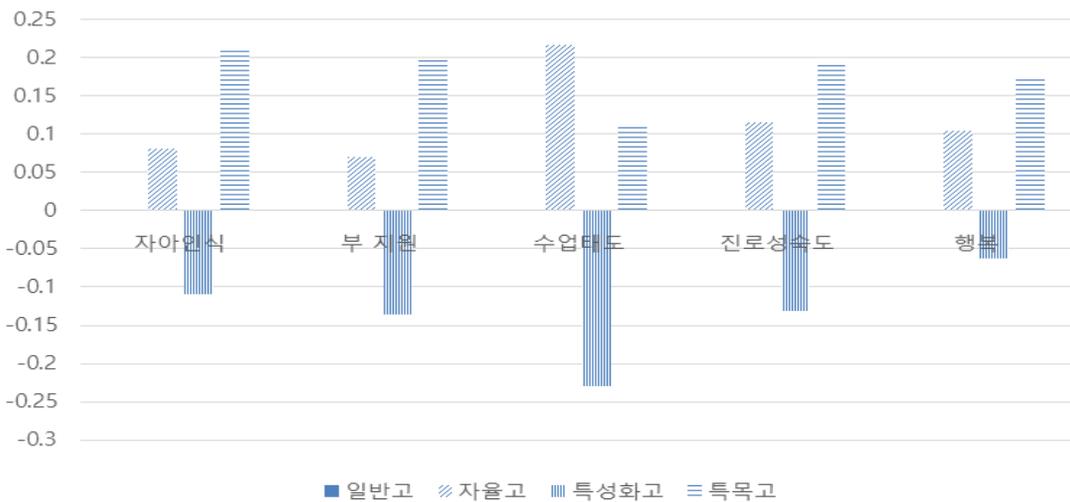
구분	$\chi^2$	$p$	$df$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801.237	.00	100	.958	.977	.030
모형2: 측정동일성	842.323	.00	115	.962	.976	.028
모형3: 절편동일성	1,462.657	.00	145	.946	.956	.034
모형4: 요인분산동일성	1,20.540	.00	160	.949	.955	.033

잠재평균 추정을 위한 동일성(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제약을 충족하여, 잠재평균분석을 실행하였다. 각 학교 유형별 잠재평균을 비교한 값은 <표 7>과 같다. 상수 1을 각 요인에 대한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여기에서 추정되는 회귀계수가 요인의 평균이 잠재평균(홍세희·황매향·이은설, 2005)으로,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Hancock, 1997).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를 0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집단의 잠재평균을 확인함과 동시에 Cohen(1998)의 효과크기( $d$ )를 통해 어느 정도의 평균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요인분산동일성을 제약을 시행하였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집단별 잠재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아인식, 부 지원, 진로성숙도 및 행복은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업태도는 특성화고,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Cohen의 효과크기는  $d$ 값이 .200 이하이면 작은 수준, .500을 기준으로 .200에서 .800 사이이면 중간 수준, .800 이상이면 큰 수준으로 해석된다. 자아인식, 부 지원, 행복은 일반고와 특목고의 차이가 중간수준으로, 수업태도는 일반고와 자율고, 특성화고의 차이가 중간수준으로, 진로성숙도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특목고의 차이가 중간수준으로, 나머지는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 집단별 잠재평균

변인		자아인식	부 지원	수업태도	진로성숙도	행복
일반고	잠재평균	.000	.000	.000	.000	.000
	평균	3.673	3.615	3.101	3.452	3.891
자율고	잠재평균	.081*	.070*	.217*	.116*	.105*
	평균	3.755	3.673	3.315	3.590	3.985
	효과크기( <i>d</i> )	.124	.096	.298	.191	.153
특성화고	잠재평균	-.109*	-.136*	-.229*	-.131*	-.062*
	평균	3.566	3.475	2.861	3.340	3.851
	효과크기( <i>d</i> )	.167	.187	.314	.215	.090
특목고	잠재평균	.210*	.198*	.110*	.191*	.172*
	평균	3.886	3.796	3.200	3.685	4.038
	효과크기( <i>d</i> )	.323	.273	.151	.314	.250
전체 평균		3.692	6.620	3.078	3.470	3.914
표준편차		.651	.726	.729	.608	.688



[그림 3] 학교유형별 잠재평균

\* 일반고는 0으로 고정됨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행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가지 연구문제 (① 자아인식, 부지원, 장래희망여부, 학습태도, 진로성숙도, 행복간의 관계, ②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인식, 부지원, 학습태도, 진로성숙도, 행복의 차이)를 가지고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활용하여 전국의 7,841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행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인식, 부지원, 장래희망 여부, 학습태도를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진로성숙도와 행복에는 자아인식, 부지원, 장래희망여부, 학습태도가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높은 진로성숙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장래희망을 결정한 상태로 높은 자아인식과 학습태도를 가지고, 부의 긍정적 지원을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진로발달에 있어서 자아인식은 많은 연구에서 기초가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자아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타 국가와 비교하여 학습시간(1일 학습시간: 한국 4시간 55분, 미국 2시간 50분, 영국 50분, 독일 1시간 23분 등)이 과대하고, 수면시간(1일 수면시간: 한국 7시간 30분, 미국 8시간 47분, 영국 8시간 36분, 독일 8시간 06분 등)은 적다(장근영, 김기현, 2009).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자아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특히 고등학생은 대학입시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일상생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올바른 자아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업성취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학년제가 2020년에 서울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변화 외에도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과연계형 인성교육이나 비교과 활동 등을 학교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부모의 지원은 대다수의 연구가 어머니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진로성숙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아버지 효과’가 밝혀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이현아, 2015). 실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황희숙·김은희·주희진(2012)이 양육 참여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이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Jeynes(2015)은 66개의 연구를 기반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한 결과, 부의 교육에 대한 참여는 학생의 높은 성취도를 예측하였다. 아버지와 고등학생간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학교교육의 참여와 같은 기회제공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참여율이 행사 시간, 참여 내용 등을 이유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저조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아버지의 학교교육의 참여하기 위하여 아버지 교육기부단, 아빠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Wong·Roubinov·Gonzales·Dumka·Millsap(2013)는 멕시코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선 낮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사이의 갈등이 우선요소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학교 교육과 연계된 형태의 학부모교육이 교육과정이 개발됨으로써 시행되고자 하였으나(서현석, 2014), 아직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참여를 위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측면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자아인식, 부지원, 학습태도, 진로성숙도, 행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습태도를 제외하고,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자아인식, 부지원, 진로성숙도, 행복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

육목적에 따른 학교유형이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낮아지는 것은 각각의 변인별로 인지적 능력이나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수능 상위 50개교에 외국어고 21개 학교, 자율형사립고 9개 학교, 일반고 8개 학교, 국제고 6개 학교, 과학고 4개 학교, 자율형 공립고 2개 학교로 나타나고 있으며(안석배, 2015), 취업 중심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간의 비교에 있어서도 특목고인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에 비해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맹희주, 2014). 특히 진로성숙도의 김동심·주영주(2017)의 연구에서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 이후 본인의 진로를 택하여 관련된 전문기술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가 가장 낮은 진로성숙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여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행복에 대해 영향변인 검증 및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고등학생의 발달단계적 특성을 이해하고, 행복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체계, 학교운영 방향 등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이제까지 부모의 지원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것에 반하여 아버지의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앞으로 교육 및 양육에 있어서의 이들의 역할을 확인하였고,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학교유형별 운영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 본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인식, 부지원, 장래희망여부, 학습태도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외에도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폰 활용이나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살펴본다면, 청소년이 보다 높은 발달적 성숙함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을 위한 논의가 풍성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와 행복을 선정하여, 고등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발달단계와 관련된 학업과 학교적응 등에 대해서 다룸으로 보다 심도깊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의 관계 분석과 학교유형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이 대학생이 되어서의 변화를 추적조사함으로써 종단연구를 진행한다면, 2000년생의 세대연구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동심, 주영주(2017).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부모지원, 교사지원, 진로성숙도, 자기조절학습 및 학교만족도 차이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0(3), 95-122.
- 김성훈, 김안나(2009).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교육사회학 연구, 19, 47-61.
- 김종운, 김지현(2008).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와 진로성숙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1(2), 127-143.
- 김주환, 홍세희, 김민규(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천홍, 홍수진(2017). 고등학교 유형별 성취평가제를 활용한 학생평정 결과의 특징 분석. 교육연구논총, 38(4), 51-77.
- 김혜래, 이혜원(2007). 학교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23, 33-63.
- 맹희주(201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 분석. 교과교육학 연구, 18(3), 579-599.
- 문선호, 이순환(2013). 잠재평균 분석을 통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간의 차이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3(1), 301-313.
- 박완성, 김미숙(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배성만(2016). 정서적 문제, 비행,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가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6), 317-332.
- 배화분, 서주현, 김효선(2017). 고3시기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대학생의 대학전공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3(6(A)), 229-249.
- 변수용, 김경근(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 39-66.
- 서현석(2014). 한국 학부모 교육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일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363-380.
- 손선옥(2019).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 및 성별 차이. 스트레스, 27(2), 158-165.
- 송영명(2011). 특목고 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탄력성, 학업적 유능감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3), 647-669.
- 송인섭(1989). 자아개념 구조에 대한 발달적 경향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27(1), 85-103.
- 안석배(2015). 수능 상위 50개高校 중 자사고·특목고가 42개. 조선일보 8월 20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0/201508200010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0/2015082000109.html) 에서 인출.
- 오정석, 김성백, 박찬정(2014).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계획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과학연구, 16(2), 119-131.
- 이기범(2009).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청소년의 행복. 한국청소년연구, 20(1), 365-392.
- 이현아(2014). 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아버지 학교참여 사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179-191.

- 이형실(2015).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한국 가정교육학회지*, 27(4), 109-119.
- 장근영, 김기현(2009). 한국 청소년의 생활시간 국제비교와 라이프스타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39-155.
- 전혜경, 김병석, 김재철, 최희철(2012).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233-1252.
- 주희정(201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학생 발달 변화 분석.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윤희, 김순자(201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43-762.
- 최진영, 김기현(2019). 부모의 간접적 애정표현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66), 185-217.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 통계.
- 한국교육개발원(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혜림, 이지민(2018).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잠재성장모형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103-117.
- 현정환(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황현정, 백지연(2015).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비서·사무경영연구*, 24(1), 99-122.
- 황혜영, 장유진(2017).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원과 몰입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8), 135-160.
- 황희숙, 김은희, 주희진(201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2), 409-430.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 Crites, J. O.(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2nd ed.). Monterey, CA: CTB/McGraw-Hill.
- Jeynes, W. H. (2015). A meta-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involvement and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Urban Education*, 50(4), 387-423.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ee, H.-S., & Cho, H.-I.(2004).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achievement goal and career dec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6(1), 89-105.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NY: Harper & Row.
- Weerasinghe, J. & Tepperman, L.(1994). Suicide and happiness: Seven tests of the conne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32(3), 199-233.

Wong, J. J., Roubinov, D. S., Gonzales, N. A., Dumka, L. E., & Millsap, R. E. (2013). Father enrollment and participation in a parenting intervention: Personal and contextual predictors. *Family Process*, 52(3), 440-454.

## ❖ Abstract ❖

###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career maturity and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school type

Dongsim Kim, Hea Jun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career maturity and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about to enter the university or the labor market. To verify this, data from the Korea Education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s Korea Education Employment Panel Survey II (KEEP II) 1st-year data (6,449 high school students)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concept, support of father, learning attitude, and future hop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turity and happines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of self-concept, support of father, learning attitude, career maturity, and happiness according to the type of high school,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school typ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Except for learning attitude, self-concept, support of father, career maturity, and happiness were found in the order of special purpose, autonomous,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keep, career maturity, happiness, school type